

태왕 노기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관한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 당했다

동흥건설 고흥무 대표
S개발 명의만 대표인
H씨를 공범으로 고소
철저한 수사 엄벌 요구

관련기사 3면

동흥건설 고흥무 대표가 태왕 노기원 대표이사 전면에 나섰다.

고 대표는 노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그리고 S개발의 명의만 대표인 H씨를 공범으로 고소했다.

그는 철저한 수사로 법의 준엄함을 깨달

을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다.

고 대표는 대구 남구 일대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20년 10월 (주)동흥건설(이하 동흥건설)을 설립 운영 하고 있다.

고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9월 까지 봉덕동 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이천동 사랑마을 1-1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이천동 사랑마을 2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과 공동시행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소인 노기원 운영의 (주)태왕이앤씨는 2021년 7월 부터 2022년 10월 까지 위 조합들과 사이에 시공사로 선정, 위 조합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다.

■고소내용

고 대표의 고소 내용에 따르면 H씨는 고 대표가 사장상 내세운 S개발의 명의만 대표인데 2023년 6월9일 (주)태왕이앤씨의 노 대표이사와 공모, S개발의 법인인카드 등을 분실한 것처럼 해 대구지방법원 등기와 공무원에게 허위로 S개발 주주명부, 위각한 법인인감도장 등을 신고신청했다.

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S개발의 법인인감도장을 재발급 받아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냈다.

같은해 6월13일 본인의 지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경기도 일산시 IBK기업은행 주점 지점을 방문, 위법하게 발급받은 공문서(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등 일체를 제출했다.

H씨는 위와 같이 작성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신청서를 은행직원에게 건네 행사하고, S개발의 금융거래내역을 발급 받았다.

2023년 7월12일 노 대표이사와 공모한 H씨는 위 금융거래내역을 노 대표이사에 게 제공, 태왕 사무실에서 '업무협약계약 해지서'를 작성, 위각한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행위를 했다.

2023년 9월에 S개발 대표직에서 해임된 후에도, IBK은행 대구 중앙지점에 찾아가 마치 아직도 대표인 것처럼 속여 은행직원에게 금융거래정보 변경 신청서를 작성, 고

흥무에게로 발송되는 문자 서비스를 H씨 본인에게 알림 서비스가 되도록 신청해 자격요사문서 위작 및 동행사죄를 범했다.

고 대표는 노 대표가 S개발의 금융거래내역을 불법으로 교부받아 행사 고소 할 사안들을 발취해 H씨로부터 고대표를 고소하게 교사하고 그 고소장을 첨부해 민사소송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대표는 H씨의 아들이 근무하는 태왕의 회장 지시에 H씨는 거부할 수 없을 것이고 H씨 또한 이렇게 함으로서 노대표에게 댓가를 보장받는 뒷거래 의혹을 주장했다.

고 대표는 "모든 증거는 경찰조사에서 철저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참외퍼득시장 대성황

칠곡군이 마련한 참외퍼득시장 지난 24~25일 이틀간 칠곡평화분수광장에서 열렸다. 행사는 대성황을 이뤘다. 김재욱 칠곡군수와 상인들이 참외를 손에 쥐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칠곡군제공>

'더 현대 대구' 지역기여도 1위...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베스트업체 선정 영예



지난해 대형유통업체 지역기여도 조사에서 '더 현대 대구'가 최고 평가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베스트업체로 선정됐다.

더 현대 대구는 2017년부터 시행한 대기업 유통업체 지역기여도 평가 결과 발표에서 2021년을 제외한 7년 베스트업체로 선정됐다. 지역기여도 1위를 차지했다.

지역기여도 평가는 대형유통업체의 자발적인 상생협력과 지역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대구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대구지역 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8개사 26개 점포를 대상으로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10개 항목에 대해 서면심사, 현장실사, 전문가위원 심사를 거쳐 평가했다.

평가에서 더 현대 대구는 지역금융 이용, 용역서비스 지역발주, 지역인력 고용, 지역 상설매장 설치, 영입 이익 환원 등 5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다.

다른 지표에서도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부터 전문가위원 평가로 변경된 특수사업 분야에서도 대구에

술업체 협업 아트웨이브 행사, 지역업체 팝업스토어, 취미상점 운영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역업체와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으로 지역 소상공인들과 협업을 통해 '틸베이글, 몽블랑드 파리' 등의 지역의 우수식품 브랜드 팝업스토어 행사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더욱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원근 더 현대 대구 부점장은 "전통시장과의 상생활동 및 문화예술 분야에도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등 지역 유통업 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더 현대 대구의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며 "지역 중·소상인과 대형유통기업 모두가 상생과 화합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경북소방,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최우수상

"영웅인 그대여, 더 강해져라!"
전국대회 입상 쾌거 영예 안아



경북소방본부가 '제20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의 솟품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참가한 이번 대회는 올해 20회째를 맞이한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 솟품 콘테스트를 활용한 첨단 소방기술과 K-소방산업의 발전상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열렸다.

대회는 기획·기술력, 공감도 등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선정된 10개 작품을 대국민 투표로 최종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장 정다호, 소방교 전기영, 소방사 박병창 대원은 첨단 소

방 기술을 향해 달려 나가는 모습을 담은 '영웅인 그대여, 더 강해져라!'라는 제목의 CF 형식의 작품으로 콘테스트에 참가해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근오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참신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하여 이번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의 성적을 거둔 정다호, 전기영, 박병창 대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는 격려와 함께 "앞으로도 이번 수상작과 같은 참신하고 창의적인 작품이 제작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김성용 기자



! 단체장 일정 !



류규하 중구청장은 27일 오전 구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리는 '지역자율방재단 간담회'에 참석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27일 오후 남부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비슬청춘대학 개강식에 참석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국가무형유산 2024 2024 6.8.(토) ~ 6.10.(월) 경산시 자인면 계정숲

경산 자인 단오제

2024. 6. 8. (토) ~ 6. 10. (월) 경산시 자인면 계정숲

6월8일 토요일
엔제이랜덤 플레이댄스
계정숲 불빛공연 드론 라이트쇼

6월9일 일요일
전국 팔씨름 대회

6월10일 월요일
경산자인단오제 다섯마당

주최 | 주관 (사)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 후원 | 경상시 | 경상북도 | 국가유산청

군위군의회, 영농철 맞아 농촌일손돕기 나서

군위군의회 박수현 의장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지난 16일 우보면의 과수 농가를 찾아 열매숙기(적과작업)를 실시했다. 이번 봄철 농촌 일손 돕기는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내 자체 노동력 확보가 곤란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찾아 지원함으로써 적기 영농 실현과 함께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

기 위해 추진됐다.

박수현 의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이석원 대구달성산림조합장 산업포장 수상...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조합 발전 밑그림 완성 “조합원 소득향상 발전 위해 모든 열정 불태우겠다”



이석원 대구달성산림조합장이 임업 및 산림 산업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17일 산업포장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그는 2012년 4월 19일에 취임에 이어 3선 연임

에 성공, 산림조합을 현 수준까지 끌어올린 장본인이다.

대구달성산림조합(이하 조합)은 1962년 3월 13일에 창립했다.

당시 조합은 만성적인 적자조합으로 그는 취임 시부터 예산절감을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재선총 작업에 현장을 지도하면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 조합장의 ‘하면 된다’는 경영철학은 빛을 발했다.

2011년 말 기준 224억여 원이었던 자산은 2022년 말 기준 1080억 원으로 성장해 1천억 원을 돌파했다.

조합의 획기적 자산증가는 금융활성화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금융기관으로서 반석위에 올라서게 됐다.

현재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배당과 이용고 배당은 물론 전 조합원에게 환원사업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합의 발전은 이뿐만 아니다. 기존 대령동 청사는 관문시장 내 협소한 공간으로 조합원들의 접근이 불편했다.

이 조합장은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경영 활성화를 위해 청사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하면 된다’는 뜻심 하나로 2015년 5월 화원읍 설화리에 청사부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했다.

2016년 1월 건물 지상5층 연면적 694평을 신축 공사비 18억6천4백만여 원 조합자부담예산 7억6천4백만여 원으로 착공해 2016년 11월에 준공했다.

이로서 조합은 새로운 이정표를 찍었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수익창출을 위해 나무시장 활성화를 위한 묘포장 1만5000여평을 매입,

조합 경영활성화와 자산신장에 기여했다.

또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각 기관에 총 3500만여 원을 기탁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한적십자사와 군기관 등에 2500만여 원을 기탁하는 등 사회 환원에도 기여했다.

특히 조합장은 2019년 12월에 산림조합원의 복지로서 산림조합장학회를 창립, 매년 10여 명의 조합원 자녀에 1인당 백만 원씩 전달하고 있다.

이 조합장은 2023년에 대구달성산림조합장 학회에 사비로 1천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금융활성화를 위해 전국 142개 산림조합 중 처음으로 2017년 8월에 산사랑부녀회(300여명)으로 창립해 산사랑산악회, 노래교실, 요가교실, 봉사단으로 조직활성화해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활동과 달성군노인복지관에 3회에 걸쳐(1회에 200만여 원) 무료급식 봉사와 떡국 나눔 봉사도 하고 있다.

이석원 조합장은 행정학 박사, 달성군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계명대행정학과 외래교수, 가이대 특임교수 중앙회 감사위원 등을 역임해 사회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또 조합은 물론 중앙회 비상임 감사로 3년간 역임해 산림조합 발전을 위해 많은 제도 개선에도 기여했다.

이석원 조합장은 “이번 포장은 조합원 모두의 덕분으로 수상하게 됐다”며 “오로지 산림조합 원님만 바라보고 황소처럼 뚝뚝 뚝뚝하며 대구달성산림조합원님의 소득향상과 조합발전을 위해 모든 열정을 불태워 우리조합을 전국에서 가장 앞서는 베스트 조합으로 만들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대구달성산림조합은 1997 경영평가 우수상, 2015 산림청장 표창, 2017 여신실적 우수상, 2020 대한적십자사 금장포장, 2021 산림경영지도 최우수상, 2022 여신증대 최우수상, 2022 경영지도사업 우수상, 2023 경영평가 최우수상, 2023 지역사회공헌 우수 단체표창, 산업포장 수상, 대통령 표창, 산림청장 표창, 행안부장관 표창 외 다수를 수상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여성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나~

보건복지부 지정 대구여성장애인연대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에서는 Eco-Friendly Life를 모집중이다.

본 프로그램은 대구시행복복지서비스센터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으로 2024 대구시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운영사업이다.

Eco-Friendly Life 여성장애인업사이클링 아트 프로그램은 자원보존과 재활용,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친환경적인 활동을 한다.

창립24주년인 (사)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에는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여성장애인 보호작업장,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여성장애인보호작업장은 중증여성장애인들에게 작업 활동을 통해 장애로 말미암아 손상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향상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생활 및 개인적인 직업에 대한 욕구충족과 자질에 맞는 직업재활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한다.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은?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및 정보제공, 지역사회연계서비스, 역량강화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을 진행하는 One-Stop 지원팀이다.한편, 대구여성장애인연대 이정미대표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자립, 여가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미경 기자



동구청, 팔공메아리 명예기자 및 SNS 기자단 모집

팔공메아리 명예기자 5명 동구 블로그 기자 15명 동구 유튜브 기자 5명 모집



동구청은 오는 6월 14일까지 동구 소식지 ‘팔공메아리’ 명예기자 및 제12기 동구 블로그 기자단 그리고 제2기 유튜브 기자단을 모집한다.

동구대표 소식지 ‘팔공메아리’ 명예기자는 동

구 구석구석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소식지에 담는 역할을 한다. 총 5명을 모집하며, 오는 7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한다.

제12기 동구 블로그 기자단은 구청의 주요 행사, 명소, 축제, 맛집, 인물 등을 월 1회 취재 후 블로그에 올리는 역할을 한다. 총 15명을 모집하며,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활동을 하게 된다.

제2기 유튜브 기자단은 동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며, SNS 모니터링 및 홍보활동도 한다. 총 5명 모집하며, 블로그 기자단과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1년간 활동한다.

팔공메아리 명예기자는 공고일 기준 대구 동구에 거주하거나 동구 소재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블로그 기자와 유튜브 기자는 지역 제한은 없으나,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대한다.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전자메일로 지원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팔공메아리 명예기자 및 SNS 기자단 모집에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2024 달성군새마을지도자 한마음전진대회 성료

‘나’가 아닌 ‘우리’ 이방인 NO, NO! 함께해요 달성 지역민

달성군새마을회는 지난 24일 송해공원 기세 축구장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결혼이민가족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2024 달성군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대구시 및 구·

군 회장단, 남해 새마을지도자, 관내 결혼이주여성 가족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음·면 입장식 △유공자 표창 △장기자랑 △명랑운동회 등 음·면별 특색과 새마을지도자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정연욱 새마을회장은 “오늘 행사로 새마을가족 간 친목이 깊어지기 바라며, 신임회장단을 필두로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달성군 주민으로서 화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언제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로 단합하여 다 함께 잘사는 공동체 만들기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새마을회는 사랑의 감장 나누기, 사랑의 집고쳐주기, 탄소중립·생명살림운동 등 더 나은 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확대와 청년연대양성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새마을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대구시,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한다

중동 건설기계 플랫폼 무역사절단 파견 라오스-태국 식품 무역사절단 파견

대구시는 지역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KOTRA대구경북지원단과 함께 중동과 라오스-태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중동 건설기계 플랫폼 무역사절단’은 오는 27일 아랍에미리트(두바이), 29일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대상 기업은 ㈜대기공업, 대성테크, ㈜복죽, 경창정공(주), ㈜공성 등 건설기계 플랫폼 기업 외에도 중동의 치과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코리덴트(인플란트 상부 구조물 생

산)을 포함한 총 6개 기업이 참여한다. ‘라오스-태국 식품 무역사절단’은 오는 28일 라오스(비엔티엔)에서, 30일 태국(방콕)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씨지에프(주), ㈜농업회사법인 휴먼웰, ㈜궁전방, 다원바이오, 메디프렌, 농업회사법인 ㈜나온 등 총 6개 기업이 참여해 경쟁력 있는 지역생산 식품의 글로벌 판로를 모색할 예정이다.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참여기업에는 사전 해외시장조사를 통한 현지 바이어 발굴,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및 항공료 50%(1사 1인) 등이 지원된다.

안중근 대구시 경제국장은 “무역사절단은 경쟁력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공

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이다”며, “기업별 일대일 맞춤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우리 지역기업의 우수제품을 널리 알리고 수출에도 성공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광역시 오는 6월 중에 ‘북미 미래 자동차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을 모집한다. 미국(드트로이트) 및 캐나다(토론토)에 자동차 및 운송장비 부품 관련 품목으로 10월 중 파견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대구수출지원시스템(https://trade.daegu.gov.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사항은 대구시 국제통상과(053-803-3293) 또는 코트라 대구경북지원단(053-659-2556)으로 연락하면 된다. 조여은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 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jm.net

발행인 김 영 속 | 편집인 김 성 용 | 부시장 조 여 은 | 편집국장 김 현 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시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청장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규정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23,24일 이틀간 포항교육지원청에서 도 교육청 안전관리 담당 직원과 22개 교육지원청 미세먼지 업무 담당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미세먼지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미세먼지 정책과 재난 사례별 대응 교육을 통해 미세먼지 업무 담당자들의 재난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재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환경연구관의 '초미세먼지 대기질 예보제의 이해'에 대한 특강과 이필희 경상북도교육청 환경정책과 주무관의 '경상북도 미세먼지 추진 정책'에 대한 안내로 진행됐다.



고흥무-노기원 40년 지기 진흙탕 법적다툼 끝은...

(동흥건설)

(태왕이앤씨)

오랜벳 적이돼 서로 서슬퍼른 칼날 세워 경찰조사 밝혀질 듯

동흥건설 고흥무 대표의 태왕이앤씨 노기원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철저한 수사로 법의 준엄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 달라고 목청을 높였다.

고대표와 노대표이사는 40년 지기다.

오랜세월 친구로서 우정을 쌓아왔다.

지금은 사정 다르다.

말 그대로 오랜 벳이 적이돼 서로를 향해 서슬퍼른 칼날을 세우고 있다.

이 모든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서 빚어진 사태다.

발단은 태왕이앤씨가 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융 및 재산 가압류를 하면서 터졌다.

대구에 본사를 둔 태왕은 주택건설·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사업을 하는 1군 종합건설업체다. 이 회사는 2023년 7월 31일 국토부평가 건설도급순위 67위다.

금융 및 재산 가압류 사태로 봉덕동사랑마을 6단지 조합과 임원들은 사실상 실의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 봉덕동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9,981.70㎡ 규모의 202세대를 짓는다.

남구청은 지난해 12월 29일 지하 2층 지상 20층 연면적 32,771㎡ 규모의 공동주택 20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통지를 조합측에 보냈다.

꿈에 부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제는 아전인수격으로 변하고 있는 셈이다.

고흥무 대표와의 일문일담

-봉덕동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문제 있었나

△ 전혀 없었다. 모든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조합과 임원들도 이 사업에 모든것을 걸고 있었다.

얼마전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은 사업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사업에 문제가 없는데 태왕측이 가압류 했다

△ 그동안 태왕 측은 몇차례에 걸쳐 봉덕동 6단지 조합 측에 대여금 부당지급에 대한 회수 독촉권을 보냈다.

-태왕측이 압박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 2021년 7월 15일 봉덕동사랑마을 6단지 조합 측과 시공사 선정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태왕은 봉덕동사랑마을 6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다. 모든게 정상적으로 이뤄진 계약이다. 조합 측도 태왕의 대여금 부당지급의 회수 독촉권에 회신을 발송했다. 조합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현재 정비사업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가압류 조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상적으로 이뤄진 사업인데 압류하는게 이해가 안된다.

△ 조합측도 그렇게 생각한다.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태왕 노기원 대표이사가 공동시행사를 맡은 동흥건설과 손을 떼라고 압박을 가했다.

-압박을 가한 이유는

△ 노기원 대표이사가 조합측에 "봉덕동사랑마을 6단지, 이전동사랑마을 1-1단지, 이전동사랑마을 2단지 등 3개 단지 조합이 (주)동흥건설에 공동시행 수수료를 부당하게 선지급했다는 게 이유다. 동흥건설이 조합에서 지급받은 자금을 위법하게 사용, 이것은 조합 및 동흥건설 관련 자간의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까지 의심된다고 했다."

-부당하게 선지급 받았나

△ 부당하게 선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조합과 (주)동흥건설이 조합 관련자와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공언히 유포하고 문서에 적은 것은 전혀 터무니없다. 조합측이 동흥건설에 지급한 수수료는 공동시행계약서 제4조 (공동시행 수수료 및 지급방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했다.

-태왕 노 대표가 고 대표를 압박하는 진짜 이유가 뭐가

△ 태왕이 조합 측과 동흥건설을 이간시킬 목적이다.

그래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공문을 조합측에 보냈다고 생각한다.

노 대표이사가 허위사실을 유포, 동흥건설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노 대표가 고 대표를 압박해야 할 이유가 있나

△ 그래서 더 화난다. 지난해 9월 13일 태왕 사무실에서 노 대표이사, 태왕측 관계자와 봉덕동 사랑마을 6단지 조합장 등 조합관계자들이 자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노기원 대표이사가 "동흥건설에서 조합의 임원 및 조합원들의 건축사업상 무지를 이용, 수수료를 과다 책정한 것은 잘못된 시기계약이라고 조합원들에게 말했다."

-노 대표와는 사업 동반자가 아닌가

△ 맞다. 그렇지만 지금은... 생각해봐라. 노 대표가 나를 향해 온갖 허위의 말들을 쏟아내는데 참을 수가 있겠나. 주변에서는 조만간 구속된다는 말까지 들었다.

-구속 된다니 그게 무슨말인가.

△ 얼마전 지인으로 부터 이러한 말을 들었다. 너무 화가 나서 잠을 못이룰 지경이다. 노 대표가 나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 무엇보다 노 대표가 허위 사실을 조합원들에 말한 것은 여론몰이로 자신을 범죄자로 낙인, 모든 책임을 동흥건설에 전가하려는 비겁한 행위다. 노 대표의 이같은 행동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발을 빼려는 절차를 밟는 수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기원 대표를 고소했나

△ 그렇다.

-법적으로 가야했나

△ 이 문제는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내가 아무리 맞다고 주장해도 마이동풍이다.

-고소하면 승산이 있나.

△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다. 나의 명예는 물론이고, 주변 지인들에게

도 신뢰를 잃었다.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다.

-노 대표를 무슨 혐의로 고소했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등이다. 모든 사실은 경찰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사생활 문제도 폭로한다고 했는데 그렇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노 대표를 곁에서 지켜봐왔다. 누구보다도 잘 안다.

-어떤 일인가 예를 들면

△ (주)태왕 소유의 아파트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태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이다. -태왕 소유의 아파트인가? △ 태왕 소유는 아니다. 하지만 (주)태왕과 관련된 또 다른 법인(주)정리000소유의 아파트다.

-그 아파트가 어디인가.

△ 그건 말할 수 없다. 굳이 말 안 해도 노 대표는 안다. 주변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공공연한 장소 늘 함께했는데 누가 모르겠는가. 이 뿐 아니다. 외제 차량도 제공했다.

-차량 종류는

△ 벤츠다.

-벤츠를 누가 제공했다는 말인가

△ 태왕에서 제공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누가

△ 제3의 업체다.

-태왕하고 관련있는 업체인가.

△ 그렇다. 둘의 관계는 돈독하다.

-그 업체에서 차량을 제공해야 할 이유가 있나.

△ 그건 물만의 일이다. 나는 안다. 왜 차량을 제공했는지

-업체 이름 밝혀달라

△ 때가 되면 밝혀준다.

-또 다른 일들이 있나

△ 많다. 노 대표와 오래 생활했다. 노 대표의 사생활은 물론이고 그룹 회장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한 일들은 너무나 많다.

-어느 영화 대사처럼 "다 했어" 라는 말이 생각나.

△ 맞는 말이다. 많은 일들을 했다.

-뒷받침 할 증거 있나

△ 당연히 있다. 내가 바로 증거다. -책임질 수 있나 △ 책임질 수 있다.

-사생활 폭로시 노 대표가 고소한다면

△ 고소하면 더 좋다. 노 대표의 사생활 폭로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법적문제 내가(고대표) 책임진다.

-40년 지기가 적이 됐네

△ 동업자에서 적으로 변했다. 인생무상이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 -관계 개선 할 마음은 없나 △ 없다.

-오랜시간 내쫓아서 감사하다.

△ 별말을 다한다

-하고 싶은 말은

△ 너무나 많다. 구구절절한 이야기 다 하면 밤이 새도 모자란다. 무엇보다 노 대표가 회사 관련된 인물을 시켜 나를 헐아 고소하게 했다는 사실이 분개할 뿐이다.

-지금은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 명예회복이다. 나 또한 위 고소장과는 별개로 고발장 등을 통해 공인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내용들을 만민들에게 알릴 작정이다. 김성용 기자

작년 성주군 사상 첫 참외 조수입 6000억 달성

명품 참외 생산, 우리가 앞장 9회 경북농업마이스터대학 참외과정 참외품평회 개최

경북농업기술원은 지난 24일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에서 제9회 참외품평회를 개최했다.

경북농업마이스터대학 참외전공이 주최하고 참외수출농업기술지원단, 참외연구회, 춘종요가 공동후원했다.

품평회에는 8기 재학생 20명과 1~7기 마이스터 대학 졸업생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가운데 마이스터대학 학생들이 지난 2년 동안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배운 기술을 현장에 적용해 직접 재배한 참외를 출품했다.

출품작을 대상으로 참외 마이스터,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과일 모양, 색깔, 신선도, 식감, 당도 등을 기준으로 엄



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참외를 선발했다.

평가 결과 대상은 고성준(성주군 월항면), 금상은 석운근(성주군 선남면), 은상은 허순남(성주군 용암면), 동상은 곽창신(성주군 대가면), 전경훈(성주군 대가면)씨가 선정됐다.

수상한 학생들은 본인이 출품한 참외 품종 특성과 고품질 참외 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을 발표했으며, 기후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교류했다.

마이스터대학 참외 전공 재학생들은 전문농업경영인을 꿈꾸는 농가로 구성돼 있으며, 평일에는 현업에 종사하고 주말에는 마이스터 과정 수업을 병행, 학업에 대한 열의를 보여왔다.

2009년부터 시작된 경북농업마이스터대학 참외 전공 과정은 전문 기술과 지식, 경영 능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생산성과 소득 증가를 목표로 실습 위주의 맞춤형 기술-경영학습이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7명의 참외 마이스터 지정자를 배출했다.

지난해 성주군 사상 최초로 참외 조수입 6000억 원을 달성했다.

참외 마이스터대학 졸업생들이 탄탄한 산지를 구축하고 참외 생산기술을 교류 확산시킨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고품질 참외 재배를 위해 주저야 못하는 농업마이스터대학 학생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지역 농업을 선도하고 경북 참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재훈 기자

종합

대구광역시

2024년 5월 27일 월요일 4

포항시 방문단, 부산 대표 축제 '2024 해운대 모래축제' 방문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외 6명의 방문단이 지난 24~27일까지 3일간 열리는 2024 해운대 모래축제 개막식과 자매·우호도시 초청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해운대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은 2024 해운대 모래축제는 올해 세계 미술관 여행이라는 테마로 생동감 있는 모래조각 전시, 체험형 참여형 축제 프로그램, 이색공연 등 각종 다채

로운 프로그램들로 관광객을 맞이했다. 포항시는 축제 첫날, 강릉시, 보령시, 여주시 방문단과 함께 우호도시 자격으로 해운대구의 초청을 받아 개막 행사에 참가했다. 장상길 부시장은 "양도시 간 상호소통행사를 강화하고 상생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인기 짱'

칠곡 북삼고 학생 19명 의정활동 체험기회 가져

제72회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이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칠곡 북삼고 2학년 학생 19명과 지도교사가 참여했다.

제72회 청소년의회교실에는 박순범 도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했다.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결정 순서에 따라 입법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 "ESG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관심을 가지자"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찬·반 토론을 진행한 후 전자투표로 의결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참여한 학생들은 "뉴스에서만 보던 장소를 직접 방문, 체험해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며,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오고 싶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순범 도원은 "미래를 이끌어 갈 북삼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지방자치의 심장과도 같은 경북도의회를 방문하여 대단히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는 26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님들의 자리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청소년의원으로서 실제 도원과 같이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며 민주주의의 절차와 과정을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일 도원이 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 도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책에서만 보던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현장체험으로 학습하고,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참여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성용 기자



회룡포 봄꽃축제 경북 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관광객 8만명... 대성황 봄기운 느끼는 장소

2024 예천의 봄, 회룡포 봄꽃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행사는 지난달 20~지난 6일까지 예천군 용궁면 회룡포 일대에서 열렸다.

축제 개장일인 첫 주말에는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틀간 약 1만5000명이 방문

3주간 총 8만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회룡포 봄꽃축제가 예천군 대표 봄 축제로 자리를 잡았다.

축제는 2.7ha의 유채꽃밭과 2ha의 청보리밭, 울레길 꽃잔디를 비롯해 다양한 봄꽃을 조성해 봄기운을 들쭉 느낄 수 있는 힐링 장소로 주목 받았다.

회룡포 마을 입구에 가로 10m의 거대한 용모래 조형물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관광객들이 인증샷을 찍기 위한 대기행렬로 진풍경이

펼쳐졌다. 백사장을 활용한 모래 낚시터, 모래성 깃발 게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푸드트럭, 플리마켓, 7080추억의 노래, 색소폰 공연, 미로공원 체험은 남녀노소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회룡포 봄꽃축제가 전국의 대표적인 봄꽃축제로 인지도를 높여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명욱 기자

반환점 돈 구미 야시장, 누적 15만 명 방문...

일 평균 1만5430명 방문 다양한 먹거리 인기몰이



구미시는 원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26일부터 운영하는 새마을 중앙시장 야시장(구미 달달한 낭만 야시장)이 매주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 원도심의 중심이었던 새마을 중앙시장 일대는 온라인 쇼핑과 대형마트의 발달, 지역상권 이동 등이 맞물리며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는 한적한 곳이었지만, 야시장의 흥행으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6시, 야시장은 주말을 맞아 20여 개의 먹거리 매대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냄새와 야시장 중앙무대에서 펼쳐지는 흥겨운 버스킹 음악 소리가 어우러져 방문객들을 즐겁게 했다.

음식 가격은 대부분 5천 원 내외로, 가장 비싼 가격도 1만 원을 넘지 않아 합리적이라는 게 방문객들의 반응이다.

육전, 불막창, 초밥 등 인기 있는 메뉴들은 수십 분씩 대기해야 구매할 수 있고 고객 테이블은 반자리를 찾지 못해도 붐빈다.

구미 새마을 중앙시장에서 열리는 야시장은 지난 5월 18일을 기점으로 절반의 일정을 소화

했다. 공간 범위(원평동 일원)를 적용한 KT 모바일 데이터 자료(중복 인원 포함)에 따르면 새마을 중앙시장 일대의 일평균 방문 인원은 1만5430명, 누적인원 15만4300명에 이른다.

이중 타지역 거주자도 누적 인원 4만1327명(27%)에 이를 정도로 관광객 유치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야시장 먹거리 매대에서 5월 18일까지 발생한 누적 매출은 2억 원에 이르고, 일부 매대에서는 10회 매출이 1천5백만 원을 기록했다.

LED등만들기, 가죽그림만들기 등 SNS 홍보 참여자를 대상으로한 무료 체험, 도토리캐리커처, 퍼스널 컬러 등 특색있는 중앙로 동문상점가 체험 프로그램, 도민체전과 온누리상품권 홍보 등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 참여한 메뉴인 인도네시아 볶음면, 사탕수수 주스 등 접하기 어려운 음식으로 메뉴의 다변화를 꾀하고, 매출이 부진한 먹거리는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또한, 야시장 먹거리 운영자들의 부담을 경감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과 먹거리 매대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존 전통시장 상인들도 기존에 팔던 메뉴에서 탈피해 닭튀김, 닭발, 전 등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야시장을 운영하지 않는 평일에도 젊은 층이 방문하는 등 새마을 중앙시장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남은 기간 구미대학교와 협력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30·40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활기 넘치는 버스킹 공연으로 달달한 낭만 야시장의 흥행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도심 속 낭만 공원, 상주시 남산근린공원

남산공원 상주 큰 재산 2025년까지 공원명품화 사업 반드시 완수 목표

상주시의 남산근린공원이 자연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명품 공원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상주시 신봉동 산2-1 일대에 위치한 남산근린공원은 도심과 가깝고 다양한 위치에 주차장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은 상주의 대표 공원이다.

휴일이나 주말이 되면 많은 이용객들이 건강과 힐링을 위해 남산근린공원의 산책코스와 운동시설, 휴식공간 등을 찾고 있다.

하지만 노후된 공원 시설 및 인프라 부족, 추가 식재의 필요성 등 공원 재정비에 대한 요구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자연과 문화를 품은 도심 속 명품공원으로

상주시는 남산근린공원을 시민이 염원하는 도심 속 새로운 명품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남산근린공원 명품화 사업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 상주시를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상주시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상주시는 남산근린공원의 새로운 가치를 개발하고 도심 속 녹지공원을 통해 도시의 생명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신 트렌드에 맞게 공원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인프라와 시설물 등을 추가, 상주를 대표하는 '도심 숲 휴식공간'으로 하루 3000~4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형 테마 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혁신적인 공원 명품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휴식과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심 속 푸른 낭만의 단계별 업그레이드

총사업비 112억원을 들여 총 면적 20만 480㎡에 걸쳐 이뤄지는 이번 사업은 총 3단계로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각 단계는 공원의 기능과 시설을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공원의 기본 인프라를 개선하고 공원을 순환할 수 있는 산책로를 정비하는 등의 작업이 이뤄진다.

주차장의 확장과 참여광장의 조성 등을 통해 공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2단계에서는 공원 내에 사색원, 숲속도서관, 잔디극장, 익스트림장을 조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상주시민이 언제든지 모여 다양한 볼거리와 참여행사를 즐기고 머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산근린공원이 새로운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도시의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일몰전망대와 추가 주차장을 조성하여 공원의 기능을 확장한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테마형 놀이공간과 버스킹 장소 등을 마련하여 공원을 더욱 다양

한 활동의 장소로 만든다.

「상주의 보석, 남산근린공원의 혁신 명품화

단계별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친 남산근린공원은 4개 테마를 가진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전국 최고의 가족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꽃과 나무를 추가로 식재하고 공원 시설물을 재정비하는 단순한 수준을 넘어 스토리텔링으로 새 옷을 입히고 시민의 접근성을 확보해 남산근린공원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인 셈이다.

숲속도서관, 스마트 휴게쉼터, 참여정원, 향기원 등은 참여의 숲으로, 사색원, 숲속쉼터 등은 그림의 숲으로, 일몰전망대는 감성의 숲으로, 익스트림장, 스마트휴게쉼터는 놀이의 숲으로 4개의 콘셉트를 가진 각각의 공간이 어우러진 테마공원으로 구성된다.

「남산근린공원, 도심 명소의 새로운 상징으로

사업을 통해 남산근린공원은 상주시의 새로운 상징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민들이 소통하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거점으로 도시의 생활 환경을 더욱 풍요롭고 향상시키고 청년들과 지역 예술인에게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는 새로운 역할 또한 기대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남산근린공원이 상주를 대표하는 휴식공간은 물론 타지역에게도 인기가 있는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도심에 위치한 넓은 녹지인 남산공원은 상주의 큰 재산인 만큼 2025년까지 공원 명품화 사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칠곡군, '참외 퍼떡시장' 성황 우리동네 먹거리 저탄소 밥상 실현

칠곡군은 지난 24~25일까지 칠곡평화분수광장에서 참외퍼떡시장(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참외퍼떡시장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로 칠곡군에서 생산된 벌꿀참외를 비롯해, 딸기, 토마토, 오이, 표고버섯, 채소류 등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됐다.

참외 구입 시 사료포대 업사이클링 가방에 담아 판매하였고, 모든 농산물은 우리동네 먹거리로 친환경 저탄소 밥상을 실현, 예코칠곡의 이미지를 제고했다. 축제에서는 특별히 독일식 소세지를 판매하는 분도푸드와 맥주를 생산 판매하는 대경맥주에서 부스를 운영, 작은 소비 축제(소세지&비어축제)를 체험하고 특산물을 활용한 주류도 선보이며 시용할 수 있었다. 군의 참외를 주재료로 만든 참외건조칩, 참외 오란다, 참외 에이드, 미니참외붕어빵 등 다양한 가공품도 소비자들이 맛보고 구입했다.

조미경 기자



경북상인연합회,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에 힘 실어

경북상인연합회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에 힘을 보탤다.

경북상인연합회는 지난 21일 전남 여수에서 경북도 전통시장 상인 선진시장 견학에 참여한

120여명의 상인들이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응원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희망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지역 시장을 방문하며 유치 당위

성을 알렸다. 또 친절, 청결, 신용, 안전 등 관광선진화 4대 실천과제를 홍보하며 바가지요금과 호객행위 없는 친절하고 깨끗한 경주시 홍보에도 앞장섰다. 정동식 경북상인연합회장은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과 최종 결정의 순간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 여건 '최고'...명분·실리도 '최고'

20일 경주 현장실사 통해 회의장, 숙소 등 집중 점검 군사 공항 접근성, 보문단지 경호안전 측면서 높은 평가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현장실사에서 "매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경주를 시작으로 제주와 인천 등 APEC 개최 후보지 3곳을 대상으로 외교부 현장실사단의 비공개 점검이 이뤄졌다고 26일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외교부 개최도시선정위 현장실사단은 첫날인 지난 20일 KTX를 통해 경주에 도착한 후 정상회의장이 될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해외 정상들이 묵을 보문관광단지 내 숙박시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이어 대릉원과 월정교, 국립경주박물관을 거쳐 정상 입국 장소인 김해국제공항 내 VIP의전실 등 군 공항시설도 면밀히 살펴봤다.

이날 외교부 실사단은 경주 화의장과 숙박 인프라에 있어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게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무엇보다 보문호반을 중심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호텔, 리조트와 연수시설에 대해 놀랄 정도로 만족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경주시는 전했다.

또 민간인 주거지가 없고 모든 시설 기반이 집적된 보문관광단지 특성에 따른 정상회의 운영의 안정성과 편의성, 경호 안전 부분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경주시는 설명했다.

이어 동궁과 월지, 월정교, 동부사적지 등 대한민국의 역사문화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긴 도시 이미지에 대해서도 매우 높게 평가했다고 경주시는 밝혔다.

특히 김해국제공항 내부 공군 의전실 '나라마루'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해외 정상들이 군 시설을 통해 출입국할 경우 일반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실사단 모두가 크게 만족했다.

정상회의를 위해서는 비슷한 시간대 최소 30여 편의 해외 정상들이 탄 전용기들의 이착륙이 예상되는 탓에 일반 이용객들의 시간적 손실로 이어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는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또 1시간 이내 김해국제공항은 물론 대구국제공항과 포항·경주공항, 울산공항 등 공항 4곳이 활용 가능하고, 이 가운데 울산공항을 뺀 나머지 3곳이 군사공항이라는 점도 크게 부각됐다.

이는 유사시는 물론 기상이변과 정상들의 일

정변 등 비상상황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고 의전과 경호에서도 최고의 선택이 될 전망이다.

그간 경주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당위성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정체성, 지방시대 균형발전 실현, 준비된 국제회의도시로서 풍부한 경험과 역량, 정상 경호와 안전 안심도시 등을 내세워 개최 명분에서도 여타 후보도시를 압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정상회의 개최도시만의 발전이 아니라 경상북도는 물론 인접한 울산과 대구, 부산과 경상남도 등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을 이끌어 온 동남권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는

파급 범위와 효과 등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정상회의 개최의 최우선 순위로 거론되어 왔다.

특히 외교부 개최도시선정위 현장실사단이 경주를 방문했을 당시 지역 곳곳에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단지 준비해서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등등의 지역 단체들이 게시한 현수막이 나무끼면서 실사단에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APEC 경주유치추진단장으로 현장실사를 주관한 김성학 경주시 부시장은 "이번 현장실사 평가를 통해 정상회의 개최도시로서의 충분한

실적 여건이 확인된 만큼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최대의 경제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최적의 도시는 경주가 유일하다"며, "다음달 초 예정된 유치 설명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정부와 정치권에 경주 유치의 의미와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경주가 반드시 APEC 정상회의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실사를 끝낸 외교부는 다음달 초 후보도시 유치설명회와 개최도시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친 뒤 다음달 중 개최도시를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삼성라이온즈파크 광고운영사, APEC 경주유치 힘 보태다

삼성라이온즈 홈 10경기에 무료 APEC 경주 전국 홍보

삼성라이온즈파크 광고운영사인 ㈜아이에스제이플러스에서 오는 6월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을 앞두고 APEC 경주유치 홍보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아이에스제이플러스는 무료로 지난 23일부터 오는 6월 13일 중에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시간에 야구장이나 시청자들이 가장 잘 보이는 홈베이스 뒤쪽 로얄석 부근 LED 광고판 2면에 APEC 개최 가장 최적도시 경주가 공중파를 타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시기가 5월에는 23일, 28일, 29일, 30일, 31일 18:30에, 6월에는 1일과 2일은 17:00, 11일, 12일, 13일은 18:30에 스포츠채널을 통해 송출된다. 시 관계자는 "㈜아이에스제이플러스의 도움으로 현장의 생생함과 스피릿 넘치는 야구

를 즐기면서 전국의 야구팬들과 시청자들에게 APEC 개최 당연 도시 경주를 대외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며 운영사에 감사를 전했다.

김현수대표는 "내년 11월,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고 전 세계가 한국에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경호·안전, 현장 인프라, 교통, 경제성장 공유 용이 등 경쟁도시에 비해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을 찾는 세계 정상들에게 가장 한국적인 역사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오직 경주뿐이다"며 반드시 경주에서 개최되어 대구·경북의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경주유치를 기원했다.

경주에서 경북도 식품 박람회 열린다

경주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인 푸드테크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북도 식품박람회가 6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Eat the 경북, 잇다 Future'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식품박람회는 도내 식품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알리고 식품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전시행사(주제 전시관, 식품비즈니스관, 식품산업 정보관) △부대행사(요리대회, 푸드테크 컨퍼런스 등) △부대공간(휴게공간, 포토존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경주에서 경북도 식품 박람회 열린다...

3년 연속 식품박람회 개최 6월 5일부터 3일간 개최

경주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인 푸드테크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북도 식품박람회가 6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Eat the 경북, 잇다 Future'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식품박람회는 도내 식품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알리고 식품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푸드테크의 집합체인 미래형 주방 K-키친을 선보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외식테크 세미나, 전국 최초 푸드테크 요리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전시행사(주제 전시관, 식품비즈니스관, 식품산업 정보관) △부대행사(요리대회, 푸드테크 컨퍼런스 등) △부대공간(휴게공간, 포토존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주제 전시관에는 미래형 K-키친 홍보관과 조리형 로봇 소개를 비롯해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스트리트푸드 소개·시식이 펼쳐진다.

식품비즈니스관에는 도내 우수한 식품 전시·판매가 펼쳐지고, 식품산업 정보관

에는 외식산업 디지털대전환 및 마약류 근절 홍보가 이뤄진다.

부대행사 중 가장 눈여겨 볼만한 것은 행사 첫날 전국 제과제빵 및 공예 경연대회와 푸드테크 요리경연대회, 둘째 날 나만의 김밥요리 경연대회다.

경주시는 이번 식품박람회 행사와 연계해 원데이클래스와 비건디저트 만들기 체험관을 운영한다.

원데이클래스는 행사 둘째 날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친환경 재료인 커피 팔소와 천연가루를 넣은 APEC 경주 바람떡 만들기를 진행한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식물성 단백질인 콩과 두부를 활용한 건강 비건 도시락인 샐러드 만들기를 선보인다. 여기에 행사기간 비건 샌드위치 만들기 체험관도 운영한다.

관람은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gbfoodexpo.co.kr)를 참고하거나 운영사무국(053-384-7244)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식품박람회에는 미래형 주방 K-키친 소개와 로컬의 세계화 K-food 트렌드를 전시하는 특별한 공간을 준비했다"며 "행사기간 동안 관심 있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인기몰이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서 마을상담사 상담 Day 개최

경주시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Day'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2일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은 경주시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지역민 원처리반'과 연계 실시됐다. 이날 이재영 세무사를 포함해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세 담당공

무원이 참여해 생활 속 세금과 관련해 궁금한 점에 대해 상담을 가졌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주시는 현재 9명의 마을세무사들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마을세무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많은 시민들의 세금에 관한 고민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울진

호국도시 영덕의 보훈 발전 위한 초석 놓다

영덕군 보훈발전추진위원회 첫 총회 성료

(재)영덕문화관광재단 호국문화복지사업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1회 영덕군 보훈발전추진위원회 총회를 개최, 영덕군 보훈 발전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영덕군 보훈발전추진위원회는 뜻깊은 호국 자산을 보유한 영덕군을 대한민국 대표 호국보훈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출범한 단체이다.

보훈안보단체협의회 안영근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김근환 영덕군지회장과 김동승 영덕문화관광재단 호국문화복지사업 본부장이 공동 부위원장, 영덕군 재향군인회 윤문길 회장, 권순학 영덕군 주민복지과장이 각각 위원으로 내정됐다.

그 외 교육, 문화, 보건, 복지, 보훈, 종교, 언론 분야 단체장까지 자문 위원으로 동참, 총 38명(위원 15명, 자문위원 23명)으로 영덕군 보훈발전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날 총회는 1부 총회와 2부 특별 안보교육으로 진행됐다. 1부 총회는 김광열 군수를 비롯, 영덕군 보훈발전추진위원회 회장단과 자문위원까지 총 40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김광열 군수는 인사말에서 "일평생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일해 온 보훈발전추진위원회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오늘 총

울진군,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센터 개관

울진군은 지난 24일 근남면 일원에서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센터를 개관했다.

이번에 개관한 센터는 울진군이 경북도와 포항시·경주시·영덕군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과 관련하여 거점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은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진군 4개 시군의 지질명소 29개소 공원면적 2693.69㎢로 지정돼 있으며, 2023년 11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신청한 상황이다.

이날 개관식에는 손병복 울진군수를 비롯해 박형수 국회의원,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도·군의원, 지질공원 관계자, 지질대장정 참가자인 지오레인저 및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센터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위한 필수시설로, 성류굴 입구인 근남면 노음리 850-1번지에 총 사업비 85억원을 들여 지하1층·지상2층, 건축연면적 954.8㎡ 규모로 지어졌다.

주요시설로는 1층에 전시실·영상관·휴게공간 및 안내센터, 2층에 다목적 교육공간·사무실·회의실, 야외에는 체험마당 및 산책로 등이 있다.

전시·홍보·교육의 헤드쿼터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센터 개관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센터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위한 핵심 거점과 경북 동해안권 생태 지질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하여 울진군 1,000만 관광 시대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경수 기자

아토피 없는 영양! 아이가 행복한 영양!

영양군보건소, 아토피 피부염 예방 인형극 공연 실시

영양군보건소는 관내 어린이들의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아토피 예방 인형극'을 실시했다.

이날 인형극은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및 미취학 아동 28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토끼왕자 구출작전'이라는 제목으로 전문인형극단에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구성으로 진행했다.

이번 인형극은 주제에 맞는 캐릭터와 이야기를



회가 영덕군 보훈 발전이란 큰 행보의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며 "특히 영덕군은 항일의병 신돌석 장군과 318만세운동, 장사상륙작전 등 호국의 일이 깃든 고장임을 되새기고 선열들의 뜻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보훈 시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영덕군 보훈발전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첫 총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영덕문화관광재단 호국문화복지사업본부는 영덕군 호국문화 자산을 활용

한 호국문화복합리조트 타운 조성을 위해 작년 신설됐다. 본부는 보훈대상자와 가족,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인 국립보훈요양원 설립 유치 추진을 위해 지난해 영덕군 보훈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국가 정체성과 직결되는 국내·외 미래세대 간의 국제 보훈 교류와 관련해 지난 1월 29일에美德트로이트한인회와 화상회의를 실시해 영덕군민의 큰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오는 6월에는 2차 화상회의를 통해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본부는 현재까지 경북도영덕교육지원청, 대구경북흥사단, 9개 보훈 및 안보 단체, (사)326호국보훈연구소, 육군제5312부대 2대대 등 32개 기관, 단체와 MOU 체결도 완료했다.

영덕문화관광재단 호국문화복지사업본부는 영덕군을 대표적인 호국보훈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청송군, '제18회 청송사과축제' 준비 본격 돌입

청송군축제추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주제 '청송사과 끝없는 비상'으로 결정

청송군은 지난 2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축제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21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제18회 청송사과축제' 개최시기와 추진방향 그리고 개최 주제를 심의·의결했다.

제18회 청송사과축제는 청송사과 맛의 절정기

입과 동시에 가을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용전천 현비암 일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

축제 주제는 '청송사과 끝없는 비상'으로 결정했다.

이번 청송사과축제는 소비력 있고 SNS 파급력이 높은 20~30대 연령층 대상으로 사과 축제 관심도 제고와 참여 유도를 위한 온라인 축제를 올해 역시 오프라인 축제와 병행 개최할 예정이다.

청송사과축제의 잠재고객에 대한 연중 홍보효

과를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축제 역사 기록을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위원분들이 여러 의견을 고려하며 많은 논의 끝에 축제 개최시기와 추진방향을 결정했다"며, "'청송사과 끝없는 비상'이라는 축제 주제에 걸맞게 '제18회 청송사과축제'를 다채롭게 구성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인 청송사과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윤병문 기자

울릉, 가정의 달 맞이 울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활동

관내 취약계층 기탁물품 전달 사랑의 용돈지원사업 실시



울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관내 취약계층에 기탁물품을 전달하고, 관내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사랑

의 용돈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역 내 나눔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사랑의 용돈지원사업은 울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관내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용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아동 1인당 5만원의 울릉사랑상품권을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총 12명의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1인당 10만원의 울릉사랑상품권을 전달해 아이들이 더 행복한 가정의 달을 보내도록 지원했다.

또한 울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1차 회의에서 관내 취약계층 7가구에 가구당 30만원,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인부를 확인하고 울릉사랑상품권을 전달하여 지역 내 훈훈한 감동도 전했다.

이번 나눔 활동은 지에스조경개발(대표 이계식)과 울릉청년회의소(대표 최희원) 두 곳의 기탁물품(울릉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원돼, 관내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과 아끼지 않는 성원에 울릉읍 지역복지증진에 한층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

최동일 민간위원장은 "관내 어려운 취약계층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고, 울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취약가구 발굴 및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하규 울릉읍장은 "후원해 주신 지에스조경개발과 울릉청년회의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나눔활동으로 통해서 한층 더 따뜻한 울릉읍이 된 것 같아 기쁘다. 앞으로도 활발한 나눔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환 기자

청도군, 복숭아 포장박스 지원사업 추진

포장박스 지원 보조금 대폭 인상

청도군은 지역 농가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지역농특산물의 판매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2024년 복숭아 포장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3년 박스당 65원에서 2024년 200원으로 포장박스 구입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여 지급토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군비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복숭아, 자두 포장박스(4kg, 5kg) 총 250만 매를 사업량으로 잡고 있다.

지원 대상은 청도군 복숭아(자두 포함) 생산 농가이며, 농협을 통해 박스를 구매·신청한 농가뿐만 아니라 개별 구매한 농가도 지원한다.

개별 구매농가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9월 30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포장박스에 생산지(청도군) 표시 및 공동브랜드 "청리브"의 무사용도 해야 한다.

김하수청도군수는 "이번 복숭아 포장박스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복숭아 생산농가의 농가재해 발생에 따른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시장 유통경쟁력을 키우고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영양군, 민원실 폭언·폭행 민원상황 대비 모의훈련

영양군은 지난 24일 군청 종합 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특이 민원 발생 상황을 대비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대면상담 중 민원인이 폭언·폭행한 경우를 가정해 관찰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는 최근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제 상황 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훈련은 악성 민원 발생에 따른 △관리자 적극 개입·중재 시도 △녹음 등 사전고지 후 증거 확보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및 다른 방문 민원인 대피 △경찰 인계 등 비상대응반 현장 임무수행 단계별로 전개됐다.

영양군은 민원장구 안전유리 설치, 휴대용 녹음장비 보급, CCTV 설치, 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며 "민원담당 공무원은 물론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청송 '2025년도 국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청송군과 박형수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2025년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지자체와 국회 간 소통을 강화하고자 '2025년도 국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비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윤경희 청송군수, 박형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군의원 및 실과원소장 등이 참석했다.

청송군은 당면 현안사항으로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 청송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 건립사업, 진보 여성고도관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등 5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남북 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등 2025년도 국비 건의사업 25건에 대한 사업 필요성 및 추진현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향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와 지자체가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에 박형수 국회의원은 "더욱 열심히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역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통해 아토피 예방관리를, 하루 1번 목욕하고, 즉시 보습제 바르기, 하루 2번 이상 보습제 발라주기 등의 내용을 에어바운스 무대와 신나는 음악과 춤으로 주입식 형태의 내용이 아닌 아이들과 공감하는 라이브로 구성돼 있다. 권윤동 기자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영천, 군부대 유치에 총력...종교계와 광폭행보

영천, 대한민국 지키는 군사전략적 요충지

영천시는 대구 군부대 유치를 위해 시민 모두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시는 2024년 신년화두로 비룡승운으로 내걸은 이래, 지역 최우선 현안인 군부대 유치를 위해 종교와 지역을 넘어서 이른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팔공산 갯바위」에서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 기원법회' 개최

영천시는 26일, 한기초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팔공산 갯바위를 찾아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 성공을 위한 '팔공산 갯바위 유치 기원 법회'를 가졌다.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최기문 영천시장, 이만희 국회의원, 하기태 시장의장, 도시의원 및 군부대 유치민간추진위원회, 보훈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갯바위에 소원을 빌고, 참석자 전원이 힘차게 '대구 군부대는 영천으로!' 유치구호를 제창해 대구 군부대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갯바위를 찾은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본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교구장은해사주지 덕조스님이 대구 군부대 영천유치 성공기원 법회를 주관했으며, 참석자들은 108배를 통해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 성공을 빌었다.

「영천시 기독교 연합회 연합예배, '대구 군부대 영천유치 기원' 개최

영천시기독교연합회에서 오는 6월 23일 관내교

회에서 '대구 군부대 유치 기원 예배'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군부대 유치 기원 예배에 이어, 올해도 대구 군부대 유치 성공을 위해 기독교연합회도 함께 할 예정이다.

「제2회 동남권(영천, 포항, 경주) 호국학술심포지엄」 개최

2024년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포항시에서 6월 28일 열리는 '제2회 동남권 호국학술심포지엄'이 개최하고 군부대 유치협력을 담는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 당시, 민·군 협력 역사, 주민들의 활약(시민, 학도병 등) 등을 다룰 예정이며, 연이어, 2025년에는 경주시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동남권 호국학술심포지엄은 영천시가 처음 주도해, 지난 2023년 6월 29일 처음 개최, 6.25

전쟁 당시, 영천대첩·형산강 전투·안강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 군부대 유치 확정될 때까지 영천시의 저력 끝까지 보여줄 것」

영천시는 대구 군부대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유치 분위기를 지속할 계획이다. 대구 군부대 유치 민간추진위원회 주도로 홍보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며, 지역 축제 시 대구 군부대 유치 홍보부스 운영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종교계 그리고 지역을 넘어 포항, 경주에서도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를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대구 군부대 유치가 영천으로 확정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하기자



성주 "군민 품으로 돌아온 성박숯과 이천변"

지난 16일부터 4일간 개최된 '2024 성주참외 & 생명문화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축제가 끝난 축제장을 군민품으로 온전하게 돌려주기 위해 군은 지난 22일 축제장과 그 주변지역의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군청 공무원과 공무원근로자 등 100여명이 각 부서에 보유한 장비와 청소도구를 활용해 성박숯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4일 동안 먹거리존이 운영되어 음식물 찌꺼기로 얼룩진 이천변 둔치에 대대적인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2시간 동안 정화활동이 진행됐다.

성주참외 & 생명문화축제는 천연기념물인 왕버들의 서식지이자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인 성박숯과 더불어 산책과 운동 등으로 평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천변 둔치를 중심으로 축제장이 조성됨에 따라, 성주군에서는 지역민들을 위해 매년 축제 종료 후 신속하게 뒷정리를 해오고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그 어느해보다 많은 사람들이 축제장을 방문한 만큼, 축제장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교통문제와 소음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으셨다. 평소 산책로와 걷기 장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성박숯과 이천변을 하루라도 빨리 군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신속히 정비하였다"고 밝혔다. 도재훈 기자



영천시니어클럽 '6대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추진

영천시니어클럽은 지난 24일 시청오거리에서 노인일자리 시니어 소방안전지원사업 참여 어르신들과 함께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영천시니어클럽은 △공익형 14개 사업(마을환경지킴이, 플라스틱자원순환단, 불법촬영점검사업 등) △사회서비스형 10개 사업(시니어안전모니터링, 실버도우미사업 등) △시장형 8개 사업(카페모람, 엄마애국수 등) 등 총 32개 사업단 2174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다.

이날 진행된 캠페인은 소방시설,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6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현수막 홍보 및 전단지 배포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어르신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남은 기간에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며 "불법주정차 장소를 정확히 인식하고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은하기자



영주 소백산철쭉제 폐막...“가족 나들이에 쉼(休) 선물”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휴식공간 '봄의 끝자락'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소백산과 서천둔치 일원에서 열린 '2024영주 소백산철쭉제'가 26일 저녁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축제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일상에 휴식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방문한 관광객과 시민들이 '천상의 화원' 소백산을 탐방하고 도심 속 행사장에서 펼쳐진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다.

첫째날인 지난 25일 오전 소백산을 찾은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등산객 맞이 행사와 이벤트가 열려 철쭉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주령 상승공원에서는 '주령 상승제'와 주령 옛길을 개척한 주죽장군을 기리는 '주죽제의'가 열려 전통문화를 계승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축제기간 참가야영장 입구와 회합탐방지원센터에서는 입산객에게 영주 소백산철쭉제를 알리



는 플래시 이벤트가 진행됐다. 특히 소백산과 서천둔치 행사장을 모두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스탬프투어는 연일 조기 마감되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에 이어 도심까지 외연을 확장한 이번 축제는 점근성이 뛰어난 서천둔치 행사장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행사장에는 워터와 파라솔, 푸드트럭으로 구성된 '철쭉 휴(休) 피크닉존'과 철쭉 낭만 체험 등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즐기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가득해 눈길을 끌었다.

축제장을 열기로 가득 채운 경서, 노을 등 인기 가수들의 개·폐막 축하공연을 비롯해 철쭉 휴(休) 콘서트(지역문화예술인과 버스킹 공연), 텐동어미 화전놀이 공연, 철쭉댄스 경연대회(중·고등부), 철쭉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공연·체험 프로그램이 축제기간 주무대에서 진행됐다.

'철쭉 휴(休) 힐링 어드벤처존'에서는 압박 등반, 밧줄체험, 하늘그네와 문보트 등을 체험할 수 있었고 네일·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부스에도 가족단위 나들이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방문객들은 플라워존과 포토존, 장미터널에서 봄꽃 향기에 취해 사진을 찍고, 소백산과 철쭉 사진전에서 활짝 핀 꽃분홍 철쭉을 보며 지난 16일 내린 눈으로 소백산 정상에 철쭉 만개 시기가 늦춰진 아쉬움을 달랬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아름다운 영주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봄의 끝자락'을 함께 즐길 수 있었다"며 "영주 소백산철쭉제가 대한민국 대표 봄꽃 축제로 발돋움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의성군,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선정

의성군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교통과 안전 등 도시 내 사회문제를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을 빠르게 보급해 주민들이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와 겨울철 도로위험 감지시스템, 방법과 재난사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플, 지역 의료환경 증진을 위한 1인가구 케어 및 스마트 헬스케어존, 생활연구 유입을 위한 관광안내 키오스크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공모사업은 인구 30만 미만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의성군이 비롯한 10곳이 선정됐다.

군은 국비 50%를 지원받아 20~25억원 규모의 스마트도시 솔루션 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6월 국토부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시설설계공역을 거쳐, 내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재성 기자

고령군, '한국축제여행박람회' 환대 및 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고령군이 한국축제여행박람회(K-Festival2024)에서 환대 및 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고령군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제10회 한국축제여행박람회(K-Festival2024)에 참가해 고령군 홍보관을 운영하며, 환대 및 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축제여행박람회(K-Festival2024)는 국내 최신 관광의 트렌드를 선보이고, 50여개 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여행 및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로서 국내 축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다.

올해 10회를 맞은 해당 행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유한 문화와 축제, 관광 콘텐츠를 서울의 중심인 서울광장에서 천만 시민과 수도권 잠재 여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했다.

수도권으로 집중된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축제와 관광의 홍보 기회가 마련돼 직접

대면하며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박람회 구성으로는 관광 정책관, 지역 축제관, 여행 기업관으로 그중에서 고령군은 지역 축제관에 참여해 2025 고령 대가야축제 홍보관을 운영했으며 또한 세계문화유산 지산동 고분군에 대해 홍보했다.

세부적인 운영프로그램으로는 '대가야 고령 행운의 룰렛 게임', '고향사랑 기부금 홍보 물품 배부', '홍보관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를 통해 박람회를 방문한 서울시민 및 방문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 외에도 고령의 특산품인 딸기를 이용한 전시와 이벤트를 진행하고, 관광안내지도, 대가야 고령 여행 안내 리플렛, 고령사랑 기부금 홍보 리플렛, 축제 홍보 리플렛 및 기념품 등을 통하여 참가객이 고령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배영백 기자

봉화군,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은어 축제 홍보

한국 축제 & 여행박람회에서 수도권 잠재 여행소비자 대상

봉화군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제10회 한국축제&여행박람회(K-Festival2024)'에 참가해 '제26회 봉화은어축제의 다양한매력을 선보였다.

한국축제&여행박람회는 전국 지자체 축제 홍보의 장으로 매년 개최되는 대표적인 축제 박람회

이다. 올해는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려 전국 50개 시군과 관련 기관이 참가해 서울·수도권 잠재 여행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역을 알렸다.

봉화군은 '봉화 은어축제' 홍보를 위해 페이퍼도이체험, 기념품 뽑기 가위바위보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박람회장을 축제장 같은 분위기로 연출해 단순 홍보를 넘어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한 부스를 운영하며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전상기 기자

2024 의성군 일자리 박람회 개최

의성군은 오는 28일 의성체육관에서 구직자와 구인 업체 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2024 의성군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채용관, 홍보관, 취업지원관, 부대행사관 총 4개관 24개 부스로 운영되며 관내 14개

기업이 참여해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또한 관내 16개 기업은 간접 채용 형태로 이번 행사에 참여해 행사장 내 설치된 채용

계시판을 통해 이력서를 대형 접수할 예정이다.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인 경북소프트웨어 고등학교, 의성유니텍 고등학교 홍보관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의성고용복지센터에서도 구직자들의 구직 활동을 도울 예정이다. 박재성 기자

Sports Health

스포츠·건강

100세 운동법

꼭 고가 기능성 등산복 필요 없어...

한여름 바람 불면 체감온도 '영하' 그래도 운동화보단 등산화

등산객의 복장은 다양하다. 다양한 기능성을 갖춘 고가의 옷을 착용한 이부터 편안한 면티에 청바지 차림을 한 사람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목격할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복장에 정답은 없다.

입산승 대한산악연맹 교육이사는 "본인에게 편한 것이 가장 좋다"며 "굳이 근교 야산을 가는데 다 갖춰 입고 갈 필요는 없지 않다. 꼭 고가의 기능성 복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갑작스럽게 비가 오거나 추워질 수 있는 것을 대비해야 한다. 무더운 여름에도 산 정상에 오르면 바람이 불고 기온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입이사는 비가 오거나 추위에 대비한 여벌의 옷을 챙겨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에 오를 때 레깅스, 면티셔츠 등 무릎을 입어도 상관없다"면서도 "하지만 갑자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체감온도가 떨어진다. 한여름에도 (체감온도가) 영하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런 것에 대비해 윈드재킷(비탈막이) 등을 배낭 안에 넣어가는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포인트는 체온을 잘 유지하는 것이다. 방수 윈드재킷뿐 아니라 강풍에 대비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모자 등도 챙긴다면 후시 모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산에 오르기 전 일기예보를 정확히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

■ "에어백도 만약을 위한 장치, 등산화도 같은 이치" 산에 오를 때 복장뿐 아니라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지도 고민되는 부분이다. 특히 수습, 수백 가지가 넘는 등산화의 경우 꼭 착용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입 이사는 "등산화도 천차만별인데 당연히 비싼 것이 좋다"고 웃은 뒤 "하지만 굳이 가벼운 산에 오를 때 고가의 기능성 신발을 신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등산화의 경우 기본적으로 발목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내산의 경우 바위가 많아 발목을 접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굳이 여름에 두꺼운 기능성 등산화를 신을 필요는 없다. 높은 산이 아닌 근교의 산에 오를 경우 오히려 땀배출이 잘 안될 수 있고, 무거운 기능성화는 장시간 걸으면 피로를 더느낄 수 있다.

입 이사는 "산에 오를 때 정해진 신발은 없다. 운동화를 신고 산에 올라도 전혀 문제 될 것은 없다"면서도

"그래도 등산화 정도는 챙겨 가면 좋다. 운동화를 신고 간다면 (산에서) 사고가 났을 때 더 크게 다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에어백도 언젠가 터질 것을 대비해서 차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등산화도 마찬가지로 발목을 접질렸을 때 하필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면 실족이 될 수도 있고, 등산화를 신고 있다면 부상이 줄어 들 수도 있다. 그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 등산화"라고 설명했다.

입 이사는 "등산화를 신고 산에 올라본 사람이라면 이후 운동화를 착용하고 산을 타지는 않을 것"이라고 웃은 뒤 "정해진 것은 없지만 신어본 사람들은 알 것"이라고 했다.

등산화를 고를 때는 등산 양말을 고려해 사이즈를 선택해야 한다. 등산 양말은 일반 양말과 달리 발바닥 부분이 두껍다. 등산화를 고를 때는 평소 신는 운동화보다 새끼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이즈를 고르면 좋다.

입 이사는 "등산은 정말 장점이 많은 운동"이라면서도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산에 오른다면 더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로써 입이사는 양궁 대표팀 에이스답게, 지난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1차 대회에서 개인전 우승에 이어 또 한번 월드컵 정상에 오르며 다가오는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기대케 했다.

입이사는 4강에서 인도의 디피카 쿠마리를 6-2(28-26 28-28 27-27)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김천상무가 전북과 0대 0 무승부로 9경기 무패행진을 이어갔다.

26일 김천상무프로축구단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전북현대모터스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14R 경기에서 0대 0

로 비기며 9경기 무패행진을 이어갔다. 경기 막판에는 비디오 판독 시스템(VAR)으로 천당과 지옥을 오가기도 했다. 김천상무는 9경기 무패를 위한 선 발 라인업으로 골키퍼 김준홍과 박민



메달리스트 박형숙

신페리오 우승 김은영

2024 대구광역일보 여인천하 챔피언십 막내려

메달리스트 박형숙 65타 신페리오 우승 김은영

'2024 대구광역일보 여인천하 챔피언십'이 막내렸다.

대회는 지난 20일 경주 신라 컨트리 클럽에서 열렸다. 선수들은 봄 잔디를 밟으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했다. 경기는 스트로크·신페리오 순차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메달리스트 박형숙 챔피언은 박형숙 선수가 차지, 영광의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박 선수는 대회 메달리스트를 거머

쥔 우먼 파워를 자랑하는 최고의 아마추어 선수다. 부산에서 출전한 박 선수는 대회에서 7언더를 기록, 65타를 쳤다. 우승컵을 들어 올린 최 선수는 갤러리 에워 아이언세트를 받았다.

■신페리오 우승 김은영 신페리오 방식으로 열린 대회에서 우승은 대구에서 참가한 김은영 선수가 차지했다.

김 선수는 그로스 스코어(gross score)=핸디캡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경기의 결과로 나온 타수(87타, 네트 스코어(net score)=골프에서 1라운드 타수의 총계에서 자기 핸디캡을 뺀 스트로크의 수)69타를 기록했다.

김 선수는 우승 트로피와 존 바이런 폴세트를 부상으로 받았다. 준우승은 부산에서 참여한 정미정 선수가 차지했다.

정 선수는 그로스 스코어(gross score) 72타, 네트 스코어(net score) 69.8타를 기록, 부상으로 존바이런 아이언 세트를 받았다.

3위는 최선례 선수에게 돌아갔다. 부상으로 드라이버를 받았다.

최 선수는 그로스 스코어(gross score) 67타, 네트 스코어(net score) 70.8타를 기록했다.

■최고 장타자 김선화·박다운 롱기스트 상품은 존바이런 드라이버

를 내걸었다. 경기에서 롱기스트에서 270m친 선수 2명이 나왔다.

주최측은 나이순으로 정했다. 결국 최고 장타자는 주최 측이 지정한 화랑 OUT 코스 4번 홀 파5에서 270m를 기록한 김선화(경주) 선수가 괴력을 발휘, 부상으로 드라이버를 받았다.

270m 기록한 박다운 선수에게는 주최 측이 마련한 황제접합단을 부상으로 전달했다.

니어리스트는 주최 측이 지정한 화랑 IN코스 16번 홀 파3에서 70cm 기록한 하여진 선수가 차지했다.

장원에서 출전한 하 선수는 존바이런 수제 퍼터를 거머졌다. 임도형 기자



'女양궁 에이스' 임시현, 월드컵 금

슛 오프 점전 끝에 승리... 지난 1차 월드컵 이어 우승

한국 대표팀의 집안싸움으로 펼쳐진 양궁 월드컵 2차 대회 개인전 결승에서 임시현(사진-한국체대)이 전훈영(인천시청)을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시현은 26일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전훈영과의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2차 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6-5(28-29 28-28 27-26 29-28 27-28 (10-9)) 점전 끝에 우승했다.

이로써 임시현은 양궁 대표팀 에이스답게, 지난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1차 대회에서 개인전 우승에 이어 또 한번 월드컵 정상에 오르며 다가오는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기대케 했다.

임시현은 4강에서 인도의 디피카 쿠마리를 6-2(28-26 28-28 27-27)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전훈영은 알레한드라 발렌시아(멕시코)를 6-2(30-29 26-27 29-26 28-26)로 꺾고 결승전에 올랐다.

한국 선수 두 명이 금메달을 놓고 경쟁하는 집안싸움이 됐다.

임시현과 전훈영은 남수현(순천시청)과 여자 대표팀을 꾸려 이날 경기 단체전 중국전에서 준우승을 합작한 바 있다. 단체전 결승에 오른 선수들이 만난 만큼 팽팽한 경기가 펼쳐졌다.

1세트는 10점 두 발을 쏜 전훈영이 29-28로 앞서며 세트 스코어를 먼저 가져왔다.

2세트에서는 두 선수가 나란히 28점을 쏴며 1점씩을 나누어 갔다.

3세트부터 임시현이 분발하기 시작했다. 전부 9점으로 27점을 기록한 반면, 전훈영은 10점 한 번에 8점 2개를 기록하며 세트 스코어를 내졌다.

흐름을 탄 임시현은 4세트에서도 29-28로 앞서며 세트 스코어 5-3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전훈영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5세트에서 28-27로 앞서며 5-5 균형을 맞췄다. 이어진 슛 아웃에서 승부가 갈렸다. 10점을 쓴 임시현이 9점을 맞춘 전훈영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시현은 경기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결승에서 (전)훈영 언니랑 만나게 돼 기뻐요. (상대가) 훈영 언니여서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슛오프 가기 전에 서로 응원하고 들어가서, 정말 재밌게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훈영은 "나 역시 (임)시현이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 둘 다(에게) 좋은 경기라고 생각해서 크게 다른 생각은 없었다"며 대표팀 동생의 우승을 축하했다.

이어 "오전에 치렀던 단체전 경기 자체가 (은)메달에 그쳐)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송명주 기자

규, 김봉수, 박승욱, 김태현 포백으로 수비를 구성했다.

중원은 부산에서 복귀한 김동현과 원두재, 강현욱이 맡았다.

전방에는 정지인, 이영준, 김현욱이 자리하며 전북의 골문을 노렸다.

김천상무는 전반 시작부터 위기를 맞았다.

임성재, PGA 찰스 슈와브 챌린지 3라운드 공동 7위

임성재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찰스 슈와브 챌린지'(총상금 910만 달러 약 124억5000만원) 3라운드에서 공동 7위에 자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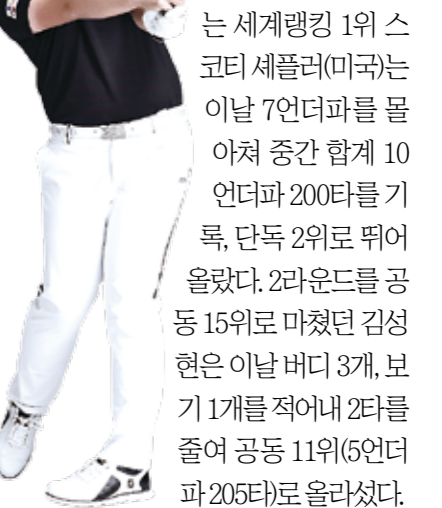
임성재는 26일(한국시각)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콜로니얼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3개를 묶어 이븐파 70타를 쳤다.

중간 합계 6언더파 204타를 작성한 임성재는 전날 공동 4위에서 3계단 떨어진 공동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임성재는 지난날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 우승과 지난 13일 PGA 투어 웰스 파고 챔피언십 공동 4위로 기세를 올렸으나 직전 대회인 PGA 챔피언십에서 컷 탈락하며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대회 마지막 날 에 역전 우승을 노리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4언더파 196타로 이틀 연속 단독 선두를 질주 중인 데이비스 라일리(미국)와 8타차이다.

시즌 5승을 노리는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이날 버디 3개, 보기 1개를 적어내 2타를 줄여 공동 11위(5언더파 205타)로 올라섰다.



학생건강검진,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받는다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 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 기관에서 근골격, 눈, 귀, 코, 목, 피부, 구강 등 10개 항목에 대

해 학생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검진 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정된 검진 기관이 너무 멀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학생과 학부모도 있었다.

추진단은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 기관에서 언제든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검진 항목에 신체 발달 상황 외에 교육·상담 항목을 추가해 검진 때 의사가 비만 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도 하기로 했다.